

굽은 대들보...역동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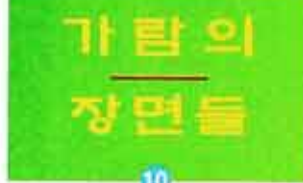
청룡사 대웅전

우리 전통 건축의 원초적이고 역동적이며, 중용적인 미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청룡사 대웅전의 휘어진듯 굽은 기둥들

청룡사 대웅전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에 있는 청룡사는 고려말 명승인 나옹왕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나옹은 보우스님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고승으로 현재의 조계종이나 태고종과도 연관이 깊다. 나옹스님은 지금의 청룡사를 증창하면서 한 마리 푸른 용이 오색빛 찬란히 빛나는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고는 산이름을 서운산, 절이름을 청룡사라 고쳤다고 전한다.

지로 짙어서 반듯하게 만든다면, 기둥이나 보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묘안을 찾아낸 것이 휘어진 나무를 휘어진 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겉보기에는 임시적이고 초라해 보여도, 이 기법은 매우 우수한 구조적 장점을 보장하게 된다. 대들보와 같이 수평으로 걸리는 부재에는 항상 지붕에서 내려오는 수직적 하중이 걸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들보는 아래로 처지는 힘을 받게 되고

곧 쓰러질듯 휘어진 기둥 800년 넘게 굳건히 버티

나무성질 께똥 기법 '감탄'

고 심할 경우 힘을 못이겨 부러지게 된다. 그러나 미리 위로 휘어진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밑으로 처질 염려도 없고 부러질 위험도 없다. 또 시각적으로도 위로 휘어진 나무는 안정하게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이유 때문에 한국건축에는 위로 휘어진 대들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미학적 기준으로 고착되었다.

휘어진 나무들을 기둥으로 또는 대들보로 그대로 사용한 예는 한국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

다. 고창 신운사 만세루의 대들보들은 아름답게 휘어진 나무들이다. 심지어는 두 개의 나무를 이어붙인 것도 있다. 실내로 들어기면 운동 휘어지고 거친 돌보들로 아늑한 맛이 아니고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감동이 가득하다. 섬세하게 단정된 다른 건물들과는 또 다른 미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을 인간의 도범으로 삼았던 노자(老子)의 철학에 의하면 '크게 완성된 것은 마치 찌그러진 듯하며, 크게 정교한 것은 마치 서투른 듯이 보인다'(大成若缺 大巧若拙)라고 했다. 자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건축이 가졌던 모습도 그런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직선을 곡직(曲直)하다고 표현했다. 휘어진 듯 곧으며, 곧은 듯 휘어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한국건축에서 사용한 직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른 수학적 직선이 아니라, 곡직한 직선이었다. 이러한 반어법적 표현은 한국건축 곳곳에 숨어있다. 예컨대, 열린 듯 닫혀있었다가, 내부인 듯 외부라든가, 가혹 찬 듯 비위진단든가 하는 음과 양이 하나로 조화되는 음양론적 사고일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적인 미학을 존중한 결과일 수도 있다. 직선적이 아닌 곡선적이며, 정교한 것이 아닌 투박하고 역동적인 미학이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위태위태한 아름다움을 청룡사 대웅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면 가히 한국관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부어 출판되었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학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동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이라는 카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법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 66 변형 394쪽 / 값 6000원

사람도서관은 전법과 포교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각종 문헌정보와 영상정보, 여기에 인터넷과 같은 첨단 전자정보 등을 두루 갖춘 사람도서관은 그 자체가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워준다. 이런 사람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참신하고 알찬 포교의 전법을 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도서관 공간이 마련했다면 다음 일은 불서선정 구입과 불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절·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신도 범공양운동 '지름길'

불서구입·분류

넉넉치 않은 도서구입비를 알뜰히 활용해 신도들의 입맛에 맞고 길도 좋은 책을 선정 구입하는 일은 사람 도서관의 숙제다. 이 숙제를 풀아가는 방법의 첫째는 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신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선 신도들의 독서경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가능한 '불서보시운동'을 펼쳐 모으는 방법을 택하면 도서구입비를 절감하고 신도들에게 독서문화를 활성화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인 자문받아 도서 선정 봉사 캠페인 동참하면 경비절감 서점식 분류 찾기 쉽고 실용적

데 도움이 된다. 신영및 교육과 관련지어 신도들에게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적어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단 경정류나 선서의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선정 구입해야 신도들이 체계적으로 독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다른 방법중에 하나가 저명한 학자나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정위원회를 꾸리거나 자문을 받는 일이다. 많은 경우행정을 담당하는 주지스님이 도서관 운영까지 총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도서선정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사람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어떤 책이 필요한가를 선정해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도 관할을 것이다.

도서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계신문, 잡지 통신망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문·잡지에 소개되는 신간서적이나 출판사 등에서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 중에서도 좋은 도서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 책방 여시아문(buddhania.com), 불교시대(buddhistbook.co.kr) 등에서도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봉사 캠페인에 동참하면 할인 혜택은 물론 상담과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서관 관리자는 새로운 정보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저렴하고 질 좋은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서가 마련했다면 신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처지에서 원하는 책과 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열쇠다. 분류는 분류번호대로 책을 배열해 같은 주제의 책들이 옆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사실 분류번호란 정답이 없다.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과 신도들의 수준에 따라 책의 분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는 이용자

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춘 나름대로의 분류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도서기호(ISBN), 한국십진분류법(KDC)상의 분류 등이 있지만 사람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양이 적고 불서만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분류법보다는 나름대로의 분류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즉 서점의 배열처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신도들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눈에 띄도록 들어오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불교입문, 불교사, 교리, 불교경전 및 관련서, 법의·의식, 예불·사경 관련서, 재물·보살 및 스님 전기, 포교 교육 윤리, 불교문학, 법어집, 설법집, 신서 및 관련서, 불교예술(미술 건축 음악), 어린이 도서, 명상 등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불서 종합목록을 만들어 보자. 신도들이 관심이 높은 새로운 책, 소설, 정기간행물 등의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서선정 및 구입과 분류를 위해서는 주지스님과 신도회 등 각 시행단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동참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김종근 기자(jamja@buddhania.com)

우리절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한대불교신문은 올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회 기탁기부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 만들기·운영에 대한 심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 나온 불서 한권을 절로 보내는 일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관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영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참안내
 - ① 도서관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봉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 ② 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책을 보내거나 봉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십시오.
- 상담전화: (02)737-9881 출판부장
-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 협찬: 교계 출판사 (사람도서관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주머니 속 대장경 303·선(禪) 여시아문은 절로 반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이겠다는 정신으로 세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